

01 교회소식

“희한한 무지개가 떴어요”

신년 작정 기도회 기간 중 복합적인 형태의 희한한 무지개로 약속의 증표를 보이시고 치료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03 기획특집

미국 버지니아에서 온 편지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해 기도 받은 뒤 아들의 피부병이 치료된 미국 성도님의 감사 편지.

04 간증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 2도 화상, 악성빈혈이 치료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36호 2021년 1월 3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만민 위에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신년 작정 기도회 첫날, 언약의 상징 무지개 나타나



지난 1월 11일(월), 마산만민교회(사진 1)와 밀양만민교회 상공(사진 2)에 희한한 무지개가 떴다.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의 양옆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듯 빛이 나며 12시 방향으로는 날개처럼 생긴 무지개가 걸쳐 있었다. 원형 무지개 밖으로는 부채꼴 모양의 무지개를 포함한 또 하나의 커다란 반원형 무지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형태였다.

특히 이날은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참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2021년 7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신년 작정으로 드리는 첫날이었다. 성도들은 이 무지개를 영상을 통해 함께 보며 응답과 축복, 약속의 증표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형태의 무지개는 2011년 1월 19일 무안만민교회(사진 3)에 처음 출현하였으며, 이후로도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1월 25일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사진 4).

1998년 5월 15일, 우리 교회 상공에 뜬 원형 무지개를 시작으로 국내외 만민의 사역지에서는 날씨가 기온과 상관없이 원형 무지개 외에도 각종 희한한 형태의 무지개가 끊임없이 출현해왔다.

성경 곳곳에는 무지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고, 에스겔 1장 28절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했으며, 10장 1절에는 장차 7년 환난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 사이에 어떤 중대한 약속을 할 때 반지 같은 증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민에게,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인도 소식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 통해 응답받았어요!



아시마 성도

“작정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 1월 15일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존 성도

“성령의 불을 받아 통화자복을 하니 방언의 은사가 입혀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레쉬 성도

“작정 다니엘철야 첫날 결석이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쇼크 성도

“만성 허리통증이 성령의 불을 받아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니탈라 성도

“2020년 말부터 있던 배노통이 멈춰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포산 성도

“12년 정도 콧물이 멈추지 않던 비염 증상이 성령의 불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애굽기 3:14)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에레미야 32:2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어렵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도 ‘언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시작과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끝이 있지요. 골동품도 그것이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고, 역사적인 사건에도 그 시작과 끝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시작점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생각할 수 있다면,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셨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창조했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신이시라면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2. 태초에 근본의 빛과 소리로 계시며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요. ‘어두움’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하며 ‘빛’이란 죄나 악이 전혀 없이 사랑, 선, 의 등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빛이실 뿐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셨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운 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곧 근본의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 경작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입게 되셨는데 과연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

람을 만들고...”라고 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닮았지요.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마음이 변질되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3.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찬양과 경배의 대상

피조물인 사람과는 달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가 경배하며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속이나 나무, 돌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므로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흔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친이라고 한 것은 제자들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부모의 기를 물려받고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신 것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결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지요. 엘리야를 통해 수년간의 가뭄을 예언케 하시는가 하면,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불의 응답과 큰비를 내리셨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기도 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도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갖가지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지요. 또한 물 위를 걸으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보여 주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히 13:8).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개척 이래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게 직접 기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화상을 통해 기도를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제가 기도해 준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에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요. 결혼하여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기도 받은 후 잉태한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 오는데, 그럴 때도 제가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파키스탄의 ‘신시아’라는 소녀는 셀리악이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던 언니가 제게 신시아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은 바로 그 시간부터 급속히 호전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회복했지요.

부흥성회나 해외 대형 집회를 인도할 때는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으므로 단에서 전체를 위한 기도만 해 주는데도 무수한 사람이 일시에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페루 성회 때 21세 청년 ‘임마누엘 모라’가 에이즈를 치료받았습니다. 성회 첫날 간증자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임마누엘은 둘째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화장실에 가서 에이즈로 인해 두 달 반 동안 계속되던 설사가 멎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인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판정이 나왔고, 함께 참석했던 할머니도 자궁암으로 인한 하혈이 성회 셋째 날부터 그치고 치료받았지요.

성회 장소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과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참석한 사람들도 동시에 치료받은 경우가 무수합니다. 성회가 끝나고 나면 세계 곳곳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간증이 쇄도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기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사’란 날씨와 기후 등 하늘의 천

기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련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을 셀 수 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기도하는 순간 멈추기도 하고, 각종 야외 행사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 따가운 햇볕을 가려 주기도 했지요. 이 외에 질병과 연약함의 치료는 물론 갖가지 희한한 능과 표적, 구름과 별들, 그리고 각종 무지개 등의 기사로 우리 교회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의 치료 응답뿐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전능하시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분, 곧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과 스킵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앞일을 알려 주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합당한 사람을 통해 장래의 일을 예언하도록 역사하시지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 주신 수많은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오심,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마지막 때 세계의 흐름 등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되어 왔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7년 혼인잔치, 7년 환난,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백보좌 대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피부병이 기도 받은 뒤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니카라과 출신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지요.

새해 첫날, 저는 아주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신년 개인 기도제목 중 하나인 아들의 피부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

아들 저스틴 바르가스(17세)는 몇 개월 동안 손과 어깨에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애완동물로부터 옮겨진 것 같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송구영신예배 시 이수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실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 뒤 아들의 피부병이 급속히 호전되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벨링 라모스 성도 (미국 버지니아 주, 35세)

“하나님 권능으로 ‘2도 화상’을 치료받았습니다”



정미화 집사
(중국 1교구, 63세)

님께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화기가 싹 사라지고 목에 약간의 통증만 남았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 기도를 일곱 번 받은 후에는 이것도 완전히 사라졌지요. 이후에도 저는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수시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경과를 지켜봐야 화상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경과를 지켜본 의사 선생님은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수술하기는 애매하고 목과 어깨 사이의 가슴 위쪽 화상 부위는 칼로 긁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칼로 긁어내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치 않으니 화상으로 익은 살이 녹아내리는 경과를 보자 하시면서, 익은 살이 녹지 않으면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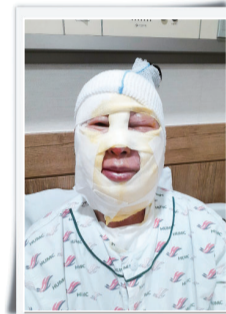
저는 기도 받은 후 화기가 사라져 통증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1월 10일(주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제 사진 위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GCN방송으로 저녁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입해 마음이 불붙듯 너무나 뜨거웠지요.

그 다음 날부터 화상으로 살이 익은 부분이 녹아내리고 새살이 돋아 이후 신속하게 호전되었습니다. 2도 화상을 입은 지 2주 만에 퇴원하였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러한 사랑을 받은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2020.12.30. 화상 당일



▲ 입원 10일 후

2020년 12월 30일,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폐유를 넣은 기름통을 옮기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폐유를 넣은 기름통 뚜껑을 닫은 채 옮기던 중 뚜껑이 ‘펑’ 하고 열리면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내 기름은 제 얼굴과 목, 어깨 부위로 튀어 올랐지요.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저는 119구급차에 실려 화상전문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대교구장님이신 황금란 전도사

“ 세 살 때부터 악성빈혈로 많이 아팠는데 건강해졌어요 ”

저는 세 살 때부터 악성빈혈로 많이 아팠습니다. 핏속에 산소가 부족해 아주 심한 몸의 통증이 있었고, 그 부작용으로 안구 황달까지 오게 되었지요. 엄마는 저의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셨으나 제 몸이 좋아지지 않자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아홉 살이던 2018년 11월, 친구가 저를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 후 정명호 담임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일곱 살, 네 살, 한 살인 3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집에서 교회에 가려면 버스타는 곳까지 1.5km를 30~40분씩 걸어야 했고, 버스를 못 타는 날은 6km를 걸어서 가야 했지요.

엄마는 저희 집이 있는 단도라 지역의 인터넷서널 교회 일꾼이신데, 제가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동생들과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몸이 이전

선톤 오티에노 아동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12세)



보다 좋아졌고, 교회에서 가져온 ‘만민뉴스’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패밀리TV의 프로그램을 보신 후 치료의 역사가 있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월 열리는 ‘환자를 위한 손수건 집회’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때마다 점차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반복되었지요. 이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몸이 통증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예배는 물론 금요일아침예배와 교구기도회에도 참석해 열심히 기도를 받았습니. 2019년 12월, ‘환자를 위한 손수건 집회’ 때 기도를 받은 뒤에는 온전히 치료받아 건강해졌지요.

엄마는 너무나 감사하여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방문해 정명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셨고 아빠는 누나와 저, 동생들과 함께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치료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